

●●● 김선중 서울대학교 교수(본회 위생방역대책위원장)

## HPAI 백신 보급을 통한 농가피해 최소화를



▲ 김선중

1941 전북 김제 출신  
1966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1968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1974 호주 멜본대학교(석사)  
1977 호주 퀸스랜드대학교 박사  
1967~80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 근무(바이러스과, 조류질병과)  
1980~현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조류질병학)  
1997~99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장

☆최근 연구분야

가금티푸스 생균백신 개발  
국내유행 뉴캐슬병 바이러스 적합성 백신개발  
역유전학적 방법에 의한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개발

최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이며 본회 위생방역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선중 교수를 만나 최근의 근황과 2006년도 위생방역대책에 대해 고견을 들어보았다.

김선중 교수는 최근 후학양성 뿐만 아니라 양계질병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연구, 분석하여 자료를 정리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연구실에는 많은 분량의 연구 자료들이 쌓여있어 그 동안의 연구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 HPAI 차단 방역에 관심들

김선중 교수는 최근 중국 등 동남아에 상존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HPAI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 HPAI가 국내에 발병하지 않았지만 지난 2003년도 발생 경험이 있

기 때문에 철저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 유입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아직까지 철새에서 유입될 수 있다는 추측 이외에는 명확하게 유입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수입되는 가금육에 대해 인력과 예산을 보충해서라도 샘플검사가 아닌 모든 컨테이너마다 철저한 검역을 할 수 있는 검역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검역을 통과하지 않고 밀수로 들어오는 애완동물(가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사전 유입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항만과 부두에 쌓여있는 수입곡류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비둘기 등 텃새들의 접근을 막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을 언급하였다.

### 농가 피해 최소화 노력

최근 농가에서는 닭들이 콧물을 흘리고 사료를 잘 먹지 않아 폐사에까지 이르는 현상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이 신종질병이 농장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양계산물 수입개방이 이루어진 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경검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김선중 교수는 최근 1~2년 사이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뉴모바이러스가 육계농장, 종계농장은 물론 산란계에까지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 발생 현황과 농가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져 농가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랐다.

또한 최근 질병발생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

분이 LPAI이다. 김교수는 LPAI는 HPAI로 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강력한 정책을 통해 확실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4년 6월 LPAI에 대한 백신 사용이 공식적으로 결정되면서 현재 검역원의 주도하에 국내 5개 백신 생산업체가 백신 생산을 준비하고는 있으나 LPAI에 의한 피해가 막심한 것을 감안하여 조기에 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기를 바랐다. 현재 LPAI의 경우 살처분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절을 위해서는 비록 백신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 접근하여야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병술년 질병없는 해로

HPAI의 위협속에 양계협회 위생방역대책위원회를 이끌면서 2006년도에는 양계농가들이 적어도 가금티푸스나 뉴캐슬병과 같은 후진국형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김선중 교수는 정부에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은 일선 양계전문수의사들은 물론 대학교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산학연이 함께 공동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양계인들도 차단방역과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여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질병전파의 핵심으로 꼽히는 출하 차량, 난좌, 계분 처리에 대한 현실성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을 거듭 강조하고 양계인들도 스스로는 무엇을 하여야 하며 정부나 관계당국에 요구할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여 추진하기를 주문하였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

●●● 강창원 신임 한국가금학회 회장

## 내실을 다지는 학회가 되겠다



▲ 강창원

- 1975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 1978 South Dakota State Unvi, 대학원 졸업(석사)
- 1983 Unvi. of Wisconsin - Madison 영양학·가금학 박사
- 1985 Ralston Purina International 기술연구담당이사
- 1999 동물자원연구센터 소장
- 2001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교수
- 2004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학장
- 2004 동물자원과학회 이사, 영양사료연구회장
- 2005 대한양계협회 월간양계 편집위원
- 2005 한국가금학회 회장

한국가금학회는 지난 11월 18일 22차 정기총회에서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강창원 교수를 신임 한국가금학회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강창원 회장은 정기총회 이후 더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본고는 지난 12월 13일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에서 신임 강창원 한국가금학회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한국가금학회의 방향과 정책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병술년을 맞이하여 학계 및 가금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강창원 회장의 행보에 기대를 걸어본다.

▶ 취임소감은?

양계분야에서 학계도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신임 회장으로써 큰 직무를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하나 하나 최선을 다하며 양계산업이 보다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본임의 역할을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계화된

가금학회 조직을 통해 올해는 더욱 내실있는 학회로 만들 것이며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상호협력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 ▶ 올해 한국가금학회의 방향과 목표는?

한국가금학회는 학자들이 모인 단체로서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학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으로 첫째, 학회지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한국가금학회지는 학술 재단 등재지 후보이며 빠른 시일 내에 등재지로 등단하여 보다 많은 논문들이 투고되어 양계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회원수 확보와 참여도를 증진시키겠습니다. 표면적인 회원수가 아니라 본 학회에 실질적인 참여를 목표로 임원 활동 강화와 도움방안을 알리는 등 내용을 충실히 보완해 회원활동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응용학문분야에 산학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의분야와 함께 질병문제를 다루어 산학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양계세미나 개최와 2년 정도 계획을 잡아 '계란과 건강'과 같은 책자를 만들어 소비자가 양계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창구가 될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하는 한해로 만들겠습니다.

### ▶ 학계가 바라는 점은?

학계에서 현장인식부족은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보며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통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며 해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계가 연구한 결과를 보고 지원을 받는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연구라도 산업으로 이용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되는 경우

가 발생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계획을 사전에 학계에 요청하여 안정적인 연구지원이 마련된다면 학계는 학문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산업계와 학계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HPAI에 대한 견해는?

지난 한해 HPAI로 양계농가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언론에서는 과잉보도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감소시켰으며 양계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산자의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언론보도 자제와 식품·의사분야에서도 소비자들이 국내 양계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안전성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이번과 같은 과잉반응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06년에도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 월간양계에 바라는 점은?

월간양계는 36년동안 양계산업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보다 발전된 월간양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며 학술지에 게재된 깊이 있는 논문을 통해 질적향상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양계산업 프로젝트에 관한 기사를 통한 기획보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향후 리더자로서 젊은 양계인들에게 지식적 욕구를 충족시켜 양계산업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써 이끌 수 있는 양계전문지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정리 | 기영훈 기자)